내 빽인 공교회의 뿌리 유월절

(출12:29~51)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8.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빽인 공교회의 뿌리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빽인 공교회의 뿌리 유월절'
공교회(公敎會)가 나의 빽이 됩니다. 내 마음의 든든한 빽이 되는데 그런 공교회의 뿌리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투사로 시작해서 본의 아니게 외국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카투사 생활에서 강하게 느꼈던 것은 저희 부대에 30대 중반 가까운 나이의 졸병이 제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두 번 쳤다가 안 돼서 학교에서 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수로 알았습니다만 교수도 조교수를 거쳐서 정교수까지 있었으니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몰랐는데 그 양반이 부하로 들어왔습니다. 일하던 샵은 저와는 다른 곳이었지만 미군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인데, 샵에서 일하는 미군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미군들은 성인 같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인 법대의 교수님께서는 어린애 같습니다. 그 현장의 미군들이 특별히 그 양반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인데, 그 장면에서 미군들 뒤에 미국이 서있고, 한국 카투사 뒤에는 한국이 서있다는 것을 느꼈고,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뒤로 외국에서 생활할 때의 그 시대만해도 지금의 우리나라와는 또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코리아에 대해서는 6.25 전쟁밖에는 모르고 있을 때에, 느끼는 것은 어학코스에 가도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각국에서 온 개인의 뒤에 그 나라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 자체는 별 것이 아닌데도 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느끼고 풍기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그 당시의 한국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느껴봤지만, 이상할 정도로 내가 교인이라는 소속감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갑절로 기도를 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논문을 쓸 때 기도하면서 쓰지 않은 글자가 한 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공교회에 소속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인데, 장로교에도 합동을 비롯해서 교단이 몇 개나 됩니다. 그러니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이라는 소속감을 실제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라는 것을 성경공부 시간에 배웠고 설교시간에 들었지만 다 교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과 유대감은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뿐,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각양각색의 분파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로서 실제로 공교회의 소속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지리멸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세상 전체의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 그 어디에 있는 교회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의식은, 본래대로 말하자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국민의식보다 강해야하고 심지어는 내 가족의식보다도 강해야 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 때보다 믿는 교인을 만날 때에 더 강한 유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공교회 의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생면부지의 교인을 만나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내 살붙이를 만난 것처럼 느껴져야 정상이고, 그러한 공교회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심리적인 빽이 되어주는 것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 뒤에는 미국이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고, 내 뒤에는 한국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주먹만 하고 미국은 바위만 하니 바위에 주먹이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빽이 되어서 밀어줄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일치운동을 많이 하는데,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이 대

표적인 예로 그 운동을 반대하는 교파들이 뭉치는 바람에 교회가 더 깊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분파의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가지와 가지를 끈으로 묶는다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끈으로 묶여서 접촉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나무에서 수백 수천의 가지가 뻗어있는데 다 갈래 갈래의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가지가 가지를 볼 때에는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계는 다른 종파의 신앙과 직제를 연구하고 그 종파의 특색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다른 종파를 마음의 과제로 삼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종파의 뿌리를 봐야하고 나의 뿌리를 봐야 하는데 그 뿌리만이 하나입니다. 한 나무에서 수백, 수천의 가지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의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전체가 한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월절 만찬을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으로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뿌리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너무 교리적 분위기로 포장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는 성만찬과 연결이 되어서 예식의 분위기로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유월절을 기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출애굽 사건도 유월절을 기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유월절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고, 유월절 음식은 각 가정에서 먹었던 것으로 유월절이 갖는 삶의 의미를 놓치므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버리고, 공교회라고 하는 하나 된 교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뼈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을 초월하고 가족의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뛰어넘는 강렬한 연대의식을 줄 수 있는 이 공교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리멸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고 나오는데,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하셨고 유월절의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지면서 대대로 지켜지게 됩니다. 다른 분파의 신앙과 직제 같은 것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 뿌리만 잘 이해해서 모든 자들이 삶에서 이 뿌리의 의미를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분파가 지금보다 두 배로 더 많아져도 하나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분파로 나누어졌다고 하나가 안되는 게 아니

고, 뿌리의 의미를 모르니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개인별로 선민의 역사가 소개되었다가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비로소 선민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서 의미가 통하는데 유월절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유월절 공동체가 됩니다.
유월절 공동체라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지만 선민들은 이방인들인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는 역사를 보면서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뿌리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는데, 애굽에서 장자들이 모조리 죽는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자리매김이 일어난 550년 전의 모리아 산에서의 자기의 장자이자 적자이고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창22: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강제로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들이 없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은 없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서는 마음에서 이삭이 죽어버렸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민3: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며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두신 것은, 너희의 소중한 장자가 그대로 너희 곁에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가져가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한 자기 인생과 땅에서의 존재의미였던 이삭을 자발적으로 바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22: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성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겠지만,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받으며 정복자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솔선수범해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역사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서 첫째 아들들이 죽는 재앙가운데,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 소속으로 도장을 찍히고 출발한 자들이 선민이고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세상과 이 땅에서 내 마음속의 가장 귀중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공동체로서의 역사의 시작인데, 이것을 성만찬이나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묶어두지 말고(그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이고 필요한 이야기지만) 삶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교회가 유월절이라는 뿌리를 가진 하나의 공교회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남녀노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관없이 나 개인과 각자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이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이 땅에서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소중한 것들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소중한 것들을 다시 죽이는, 유월절 때에 각 가정마다 삶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유월절에 참석하는 자들이 다 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신이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은 자들은 다 참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신이 애굽 사람이더라도 그들이 원해서 할례를 받으면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선민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그 누구라도 유월절에 참여해서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업 문제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걱정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인 사업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등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까? 그 모든 문제를 마음에 끌어안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문제와도 연루되지 않은 순백의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접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징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주신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큰 장애가 되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인데, 이 땅에서 마음에 생긴 가장 소중한 장애물을 제거하고서야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기 위해 버렸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당신의 일로 처리해 나가시게 되고, 광야의 생활이 가능해지고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금도 신발이 닳거나 옷이 해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서 지우세요. 목사님들은 자꾸 그것을 생각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출석하시는 교회에 십일조도 내시고 헌금도 내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교회의 부분입니다.
교회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인도에 있는 사람, 몽고나 중국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삶의 방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깨진 이유는 유월절을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할례의 의미를 실행하는 것인데, 유월절의 사건이 없으면 할례의 정신이 실

천 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 어떤 형통이 일어나든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늘 방해를 받는 것은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먼저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잘 되면 기뻐지고, 소중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에 하나님을 보태는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미 더 이상 기쁠 필요가 없을 만큼 기쁜 것이지, 세상 일로 인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렇게 할례의 의미를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결심을 하는 것이고, 그 결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이 반복되고 실천되면서 할례의 의미가 충족되고, 어떻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시작하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삭을 바치듯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유월절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입니다. 내 눈 앞에 어떤 급박한 사건이 있고, 절박한 현실이 펼쳐져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연루되어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급박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할례의 마음이고, 이 할례의 마음을 성취되게 하신 능력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에, 브라질에 있는 사람도 유월절의 성취인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고 살고 있으며, 그에게서 할례의 의미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있다면, 우연히 태평양 어느 섬에서 만났을지라도 믿지 않는 동생보다도 더 친한 느낌이 들 것이고, 말은 한 마디도 통하지 않아도 예수와 십자가(cross)라는 말만 해도 둘이 부둥켜안고 유대감과 연대감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유월절의 성취이고, 유월절의 성취는 할례의 의미의 완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공교회는 한 사

람 한 사람이 교회의 뿌리를 거머쥐고 그 의미를 성취 할 때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공교회가 눈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땅의 공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 일을 위해 각자가 삶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유월절과 할례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역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